

開途國의 經濟成長에 대한 貿易의 役割

金 文 瑄

I

現代에 있어서 어느 國家를 莫論하고 貿易 없이 自國의 經濟를 營爲한다는 것은 거의 下可能하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國家나 다 마찬가지로 貿易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現實적으로 國家들 間에 貿易에 관하여 심각하게 對立하고 있는데 先進國과 開途國의 對立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다.

開途國은 그들의 輸出商品이 주로 一次產品이기 때문에 先進國과의 貿易에서 언제나 不利한 立場에 있음을 強調하고 이를 打開하기 위하여 開途國이 주로 輸出하는 勞動集約的인 輕工業品에 대하여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先進國은 先進國대로 自國의 内部事情을 理由로 혹은 開途國의 低賃金이나 社會的「덤핑」等を 理由로 開途國들의 要求를 받아들여야 하지않고 있다.

이러한 一連의 事態는 開途國의 바람직한 經濟成長을 達成하는데 貿易에 依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國內市場에 依存해야 할 것인가 하는 兩者擇一의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Nurkse는 이 問題에 대하여 開途國이 輸出 가능한 商品에 대한 外部의 需要增加率¹⁾이 낮다면 그리고 그들의 製造品 輸出이 諸障礙에 부딪치게 되면 國內消費를 위한 生産擴大를 하는 方法만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다.²⁾ 뿐만 아니라 그는 現實적으로 開途國이 先進國隊列에 참여할 수 있는 經濟成長을 達成하기 위하여서는 貿易에 依存하기 보다는 國內市場에 依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은 것을 그 理由로 내세우고 있다³⁾ 첫째 開途國의 勞賃이 先進國과 比較하여 낮다고 하지만 勞動의 質을 考慮한다면 그것은 잠재적인 것에 不過하다. 둘째 傳統的인 一次產品과 새로운 工產品(輸出)과의 사이에는 比較利益이 그 規模에 있어서 큰 gap이 있을 수 있다. 셋째 先進國의 貿易制限 政策이 완화될 것이라고 確實히 期待하기가 어렵다.

1) Ragnar Nurkse: Equilibrium and Growth in the World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d. 314.

2) Ragnar Nurkse: Equilibrium and Growth in the World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pp. 309-314

2 는 문 지

이것은 결국 開發國이 바람직한 經濟成長을 달성하는 데는 貿易 다시 말하면 國際市場에 依存하기보다는 國內市場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는 理論이다. 勿論 W. A. Lewis 같은 사람은 資本이나 土地에 比해서 人口가 密集되어 있는 開發國에서는 國際市場에서 解決하는 것이 알맞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Nurkse는 앞서와 같은 理由로 W. A. Lewis의 理論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 하고 있다. R. E. Caves 나 R. W. Jones 같은 사람들도 先進國의 諸障礙 때문에 先進國 市場에 期待하기는 어렵고 貿易에 依해서 바람직한 經濟成長을 達成하려면 開發途上國間에 關稅同盟 같은 것을 체결하여 이를 解決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問題가 있어 現實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있다.³⁾

開發國이 바람직한 經濟成長을 達成하는데 있어서 先進國 市場에 依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論調는 先進國의 貿易制限을 지나치게 強調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 主張대로 라면 開發國이 先進國 隊列에 참여한다는 것은 現實적으로 거의 不可能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77년에 輸出 百億弗을 突破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利用할 수 있는 資源이라고는 勞動力밖에 없다. 뿐더러 輸出「드라이브」政策을 始作한 '60年代 以後의 先進國의 貿易制限은 점차 強化되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輸出 百億弗을 突破하여 이제 名實相府한 中進國 隊列에 끼이게 되었으며 先進國으로 도약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開發國의 開發方式을 考慮하는데 있어서 先進國의 貿易制限을 지나치게 強調할 것이 아니라 勞動의 質과 關連되는 教育 問題에 많은 比重을 두어 研究되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本論文의 目的은 開發國의 開發方式과 教育과의 關係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에 관한 研究는 다음 機會에 미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開發國의 開發方式에 관한 歷史的 事實에 依한 理論들을 살펴 봄으로써 지금까지 經濟學者들이 重要하게 다루어야 할 教育問題를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 왔지 않느냐 하는 것과 開發國 開發方式에 있어서 教育問題를 先進國의 貿易制限 못지 않게 혹은 그 以上으로 強調되어야 할 것이라는 가설을 提起하는데 있다.

II

經濟成長의 意味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으나 本論文에서는 그 社會의 生産可能曲線이 擴大되는 것을 뜻하기로 한다. 이 生産可能曲線을 擴大시키는 要因으로는 人口의 增加, 資本蓄積, 技術의 變化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중의 어느 하나나 혹은 複合的인 變化에 依하여 經濟成長은 이루어진다.

大部分의 國家에서 人口는 增加하고 있으며 따라서 生産活動을 위한 勞動力의 供給 또한 增加

3) R. E. Caves: World Trade and Payments, Little, Brown and Company, 1973, pp. 563-565

하고 있다. 이와 같은 增加는 <圖 I>에서와 같이 生産可能曲線을 擴大시킬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銘心해야 할 것은 이러한 成長은 一人當 所得을 惡化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一人當 所得은 單純한 人口增加에 依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一人當 所得과 社會의 總產出高를 明確히 區別하여 成長問題를 考慮하지 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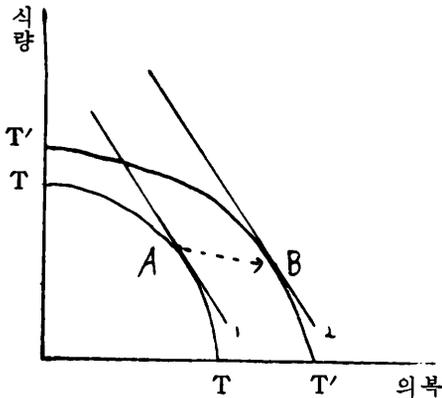


圖 I 人口의 成長과 轉換曲線. 資本蓄積에 變化가 없다고 하면 勞動力의 增加는 同一한 價格에서 衣服을 더 많이 생산하고 食糧生産을 감소시킨다. 但 衣服은 勞動集約, 食糧은 資本集約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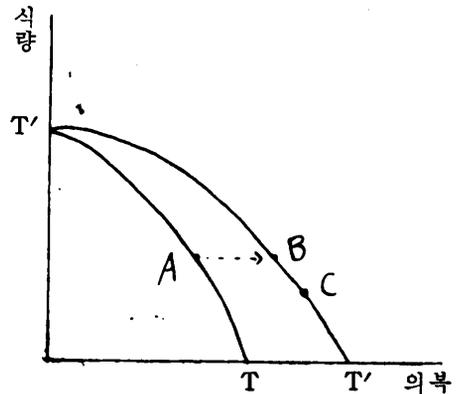


圖 II 의복생산에 있어서 중립적인 기술變化 衣服生産에서 50%의 中立의인 技術變化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生産可能曲線 TT는 50%만큼 증가한 T'T'로 된다.

現在의 資本財 生産이 資本財가 現在 감가상각되는 것 以上으로 生産되고 있다면 그 社會의 純資本 蓄積은 增加할 것이며 따라서 生産可能 曲線은 擴大될 것이다. 이에 관한 圖示는 <圖 I>에서 類推하여 생각하면 될 것이다. 資本蓄積이나 勞動力의 增加는 그 社會가 生産할 수 있는 商品의 흐름을 擴大 시킨다는 點에 있어서는 同一하지만 勞動力의 增加와는 달리 資本蓄積은 一人當 所得 또한 增加시킨다.

技術의 進歩는 產出高를 增大시킬 뿐만 아니라 勞動과 資本의 使用比率을 變化시킴으로서 그 社會의 賦存資源比率에 變化가 생긴 것과 같은 方法으로 產出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技術 進歩는 人口와 資本과는 달리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結果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첫째는 中立的인 技術進歩인 경우인데 이 때에는 資本과 勞動의 投入係數는 자기 같은 比率로 감소한다. 둘째 同一要素價格下에서의 勞動 節約的인 技術의 進歩는 勞動投入係數를 資本投入係數보다 相對的으로 減少시킨다. 셋째는 資本節約的인 技術進歩인데 이 경우는 둘째 경우의 反對가 된다. 따라서 生産可能曲線에 對한 技術變化의 效果는 各 産業에 있어서 技術變化의 相對的인 程度와 技術變化의 偏向性에 依存하게 된다.

그런데 諸産業에 있어서의 技術進歩는 그 經濟가 生産할 수 있는 組合 (Combinations) 들을

4 는 문 점

擴大시키지만 轉換曲線이 擴大되는 것에 關한 問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理由로 因하여 人口나 資本의 경우보다는 복잡하다. 첫째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技術變化에는 여러 가지 形態가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技術進步가 諸産業間에 다른 比率로 이루어진다면 要素價格 比率과 商品價格 比率과의 關係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圖 II>에서와 같이 要素價格이 變하지 않는다면 中立的인 技術進步인 경우 生産點은 A에서 B로 그렇게 되면 T'T' 曲線上에서의 B點은 TT曲線上的 A點에서보다 기울기가 편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다른 말로 表現하면 要素價格이 不變인 限 衣服에서의 技術進步는 衣服生産의 相對費用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商品價格比率이 一定한 限 衣服에서의 中立的인 技術進步는 衣服生産을 增加시키고 食糧生産을 減少시키게 되며 結果的으로는 A點에서와 같은 要素價格比率을 갖는 C點에서 生産이 行하여지게 된다.

이상에서 經濟成長의 定義와 그 要因들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貿易은 어떻게 해서 經濟成長을 可能하게 할 것인가, 貿易의 擴大는 一般的으로 一國의 賦存生産要素의 利用을 增大시키든가, 要素蓄積을 增加시킨다든가 혹은 그 經濟의 產出能力을 全部門에 걸쳐 發生케 하는데 이와 같은 方法을 通하여 貿易은 經濟成長에 기여하게 된다. 이를 具體的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賦存生産要素의 利用增大

貿易의 開始는 지금까지 使用되지 않았거나 雇傭되지 않았던 自然資源이나 土着의 勞動을 使用하게 한다. 交易條件의 改善은 이들 資源의 發見을 자극하거나 이를 위하여 投資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確信케 한다. 이렇게 되면 이들을 生産하기 위한 그 經濟의 能力은 계속해서 擴大된다. 만약 食糧이 輸出品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경작하지 않던 土地를 利用하게 됨으로써 生産은 擴大될 것이며 따라서 生産可能曲線은 擴大될 것이다. 이와같은 現象은 19世紀 「카나다」, 「오스트라리아」, 「뉴-질랜드」 등에서 發生했으며 이들의 經濟成長에 크게 기여했다⁴⁾

以上은 開途國이 貿易에 依해서 經濟成長을 이룩한 例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一次產品을 代表하는 食糧과 2次產品을 代表하는 衣服(家内手工業에 依한)을 自給하는 經濟를 생각해 보자. 貿易이 行해지지 않을 때에 이 農村社會는 그들의 勞動力을 이 두 財貨生産에 나누게 되며 結果된 產出物은 그 社會의 傳統的인 身分(status)의 형태에 따라 分配되는 傾向이 있다. 이러한 社會에서는 個人的 消費가 勞動의 限界生産物에 依하여 必然的으로 행해지지 않고 그 社會의 生産物의 慣習의 因에 依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勞動은 全部 雇傭되지 않을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社會가 食糧을 輸出하고 工場製品을 輸入하는 貿易을 行하게 되면 實的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輸入製品은 그 社會의 手工業品이 充足시켰던 것과 같은 욕구를 充足시키게 될 것이며 따라서 消費者選擇의 범위를 넓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社會는 食糧生産에

4) Ragnar Nurkse, *Equilibrium and Growth in the World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pp. 282-288

生産資源을 再割當하게 될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여러 가지의 財貨를 消費하기 위하여 여가를 희생함으로써 總勞動投入量을 增加시키게 되며 따라서 轉換曲線은 擴大될 것이다.

歴史的으로 보면 이러한 형태의 國家로는 「타이」, 「버마」 등을 例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諸國에서는 世界市場에서 쌀에 對한 交易條件이 有利해지는데 對應해서 쌀의 경작은 擴大되었고 農村의 手工業品 生産은 축소되었었다. 그렇지만 이들 國家의 實質所得은 以前보다는 높아졌다. 그러나 이 好轉된 實質所得이 반드시 이들 農村經濟의 質的인 發展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理由는 편의상 조금 뒤에서 說明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R. E. Caves가 提示하는 理由를 드는데 그치기로 한다. 그는 말하기를 「쌀재배자들은 아마 經濟的으로는 훨씬 富裕하여졌지만 그들은 製造業의 企業家가 되는 것을 배우지도 않았으며 輸出施設이나 기타 有用한 社會資本의 形成을 招來하는 것에 대한 研究를 하지 않았다. 뿐 아니라 貿易以前의 農村經濟의 社會組織은 새로운 市場의 자극에 依하여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⁵⁾ 이러한 것이 結局 이들 社會가 經濟成長을 達成하지 못한 理由라고 그는 主張하고 있다.

2. 生産要素의 賦存量 擴大

交易條件이나 貿易의 諸機會 또한 一國의 生産要素의 蓄積을 增大시키기에 依하여 經濟成長을 促進시킬 수 있다. 生産要素의 蓄積의 增大는 外國으로부터의 流動的인 生産要素의 流入이나 國內에서의 追加的인 蓄積의 創造에 依하여 이루어진다. 一般理論에 依하면 勞動이나 資本은 보다 높은 所得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 國際的으로 移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느 一國에서 貿易에 依하여 높은 所得을 얻을 수 있다면 外國의 勞動이나 資本이 이 國家로 流入되게 된다.

代表的인 이러한 現象은 19世紀中에 있었다. 많은 勞動과 資本이 歐洲로부터 美洲로 移動되었다. 이들 生産要素의 移動은 新地域(New Region)의 輸出能力은 勿論 輸送과 用役部門 그리고 其他의 諸經濟 活動을 擴大시켰다. 歐洲地域의 大部分의 海外投資가 이 곳으로 몰렸으며 世界一次大戰末頃에는 英國의 總海外投資의 2/3를 이 地域이 차지했다. 이와 같은 貿易의 擴大와 生産要素의 流入은 19世紀中에 가장 빠른 經濟成長을 이룩한 이들 國家에서 決定的으로 重要な 役割을 하였다.⁶⁾

貿易機會의 好轉은 一國에 있어서 土着의 生産要素의 賦存量 特히 資本蓄積의 擴大를 誘發하기도 한다. 新投資 機會는 期待報酬率을 높이고 따라서 貯蓄되는 所得比率을 增加시킬 수 있다. 2次大戰後 20年 동안에 가장 급속한 輸出伸張을 이룩한 歐洲諸國이 가장 높은 資本形成과 貯蓄率을 示顯한 것 같으며 反面 그렇지 못한 이웃 諸國은 보다 낮은 投資와 貯蓄 그리고 低成長을

5) R. E. Caves: World Trade and Payments, Little, Brown and Company, 1973. pp. 548-549.

6) Ragnar Nurkse: Equilibrium and Growth in the World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pp. 285-288.

示顯하였고 따라서 「인플레이」壓력을 많이 받은 것 같다⁷⁾ 輸出에 對한 強力한 可能性은 輸出産業에 對한 設備擴張이 利益이 될 것이라는 展望을 낳게 하므로 資本形成을 促進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相應하는 貯蓄의 增加 없이는 投資나 輸出景氣는 「인플레이」壓력에 依하여 사그라지고 만다.

資本의 流入은 어느程度 여분의 資源을 提供하였으며 또한 國內 貯蓄率을 增加시키기도 하였는데 國內 貯蓄率의 增加는 急速히 伸張하는 輸出에 依한 現實的인 所得의 再分配에 依하여 이루어졌다. 말하자면 莫大한 利益을 낳은 企業은 이를 再投資하였으며 一般大衆은 그들의 個人所得의 上昇하는 것만큼 消費水準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많이 貯蓄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높은 貯蓄과 投資率은 急速한 經濟成長을 享有하는 어느 國家에 對해서도 영속적인 것일 수는 없었으며 따라서 이들은 改善된 貿易機會와 急速한 經濟成長 間에 강한 一時的인 연계관계가 있었던 것같이 생각된다.

以上에서 貿易의 擴大는 生産可能曲線을 擴大시킨다는 것을 說明하였는데 貿易의 增大가 꼭 이러한 結果를 낳는다는 保障은 없다. 따라서 輸出「붐」이 그 國家에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받드시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代表的인 例는 輸出을 目的으로 開途國이 生産하는 석유정제업이나 「알루미늄」 제련업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高度로 資本集約적이기 때문에 外國의 資本과 經營者를 雇傭하지 않을 수 없는데 反하여 自國民을 爲한 일자리는 거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연관산업의 發展을 誘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때문에 貿易에 依해서 經濟成長이 이루어지려면 輸出産業은 勞動技術의 熟練度를 높이고 연관산업을 창출하며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킬 뿐 아니라 貯蓄率을 增加시키는 産業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輸出産業이 어떠한 性質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經濟成長에 미치는 效果가 다르기 때문에 開途國이 經濟成長을 促進하려고 하는 경우 自國에 有利한 成長政策을 實施하게 마련이다. 이들 政策手段으로서 租稅와 補助金을 흔히 使用하지만 그러나 이들에 依한 生産과 貿易의 模型을 수정하는 데는 限界가 있게 마련인데 이에 對한 考察은 다음 項에서 하게 될 것이다.

Ⅰ

1. 지금까지 特殊한 경우를 除外한다면 一般的으로 貿易의 增大는 經濟成長을 招來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開途國의 經濟成長은 貿易에 依해서 達成될 수 있을 것인가? 이 問題를 Ragnar Nurkse 理論과 UNCTAD 事務局의 報告書를 中心으로 考察해 보기로 한다.

우선 Ragnar Nurkse 理論부터 살펴보기로 하자⁸⁾

7) R.E. Caves: World Trade and Payments, Little, Brown and Company, 1973, p.594.

8) Ragnar Nurkse: Equilibrium and Growth in the World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chapter 11.

開途國의 貿易은 國際分業의 原理에 依하여 一次産品을 輸出하고 二次産品을 輸入하게 마련인데 이러한 형태의 貿易을 하고서는 開途國의 經濟成長은 先進國의 그것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實情이다. 19世紀에는 이러한 형태의 貿易에 依하여 開途國의 經濟成長은 達成되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여건의 變化 때문에 開途國의 經濟成長은 大端히 어려운 일이다.

19世紀中 北美地域은 國際的인 産業特化和 英國을 中心으로한 歐洲의 急速한 經濟成長은 一次産品에 대한 需要增加에 依하여 北美地域의 經濟成長을 促進시켰다. 1815~1914年 間에 많은 移民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英國의 人口는 3倍로 增加했으며 實質所得은 10倍, 輸入量은 20倍에 達하였다. 이 期間中 英國의 國民所得에 대한 輸入比率는 初期에는 12%, 後期에는 30%에 달하였다. 말하자면 英國의 經濟成長이 外部로의 波及效果는 大端히 큰 것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期間中 많은 勞動과 資本이 北美地域으로 流入되었다. 即 先進國이 一次産品에 대한 需要增加는 開途國의 交易條件을 改善시켰고 이것은 確信的인 投資를 招來했으며 結果는 期待에 어긋나지 않았었다. 그러했기 때문에 勞動과 資本의 移動은 自然發生的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外國資本의 流入은 輸出部門을 擴大시켰을 뿐만 아니라 國內經濟 活動의 擴大에 있어서 本質的인 要素가 되는 施設物의 建設을 促進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貿易환경은 19世紀와는 많이 달라졌다. 開途國의 一次産品에 대한 先進國의 需要 增加率이 그들의 所得 增加率에 못 미치기 때문에 先進國의 成長率이 開途國으로 移轉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主된 理由이다.

이러한 理由의 主된 原因은 ㉔ 先進國의 産業生産 構成이 原料를 많이 使用하는 最終生産物을 生産하는 輕工業에 서부터 적게 使用하는 重化學工業으로 移轉되고 있다는 것 ㉕ 先進國의 總生産額 中에서 用役生産 몫의 增加는 그들의 原料需要를 그들의 國民總生産의 增加에 뒤지게 하고 있다는 것, ㉖ 農産品에 대한 消費者需要의 所得彈性性은 낮은 傾向이 있다는 것, ㉗ 先進國의 農業保護主義는 開途國으로부터의 輸入에 影響을 미친다고 하는 것, ㉘ 經濟는 natural material의 産業的인 使用을 할 수 있도록 發展되어져 왔다는 것, ㉙ 先進國들은 점점 더 合成과 다른 人造代贖財를 가지고 自然原料를 代贖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Nurkse는 以上과 같은 理由로 開途國이 貿易에 依하여 經濟成長을 達成하기는 곤란하다고 한다.

다음은 UNCTAD 務局事의 報告書의 內容을 보기로 한다⁹⁾

開途國들은 그들의 만족스럽지 못한 交易條件, 交易條件이 계속적인 惡化, 輸出收入의 不安定等의 理由로 因하여 貿易에 依한 經濟成長을 非觀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理由에 對하여 좀 더 具體的으로 그 內容을 살펴보기로 하자.

9) Toward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Report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1964.

a 交易條件의 不利

開途國들은 그들의 現在의 交易條件이 不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展望도 역시 그러하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一次産品을 主輸出品으로 하는 經濟成長에 대하여는 期待를 갖고 있지 않다. 交易條件의 不利는 先進國의 獨點力에 起因하는 것이며 獨點利益은 다음과 같은 方法에 依하여 얻어진다.

첫째 많은 二次産業들은 不完全競爭 狀態에 있기 때문에 二次産品の 輸入은 限界費用을 超過하는 價格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獨點에 依한 또 하나의 利益은 先進國이 賦課하는 關稅에 依한 것이다. 關稅의 賦課는 開途國의 交易條件을 不利하게 하였고 뿐더러 열대농업의 많은 生産物은 先進國에서 生産한 類似한 代贖財와 競爭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 代贖財들은 關稅를 회피할 수 있었다. 反面에 先進國에서 온대지방의 農業이나 低技術水準의 製造産業과 競爭하는 開途國의 輸出品은 때때로 높은 關稅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開途國들도 그들간의 國際協力を 통하여 獨點에서 오는 利益을 享有하려고 努力하였었다. 말하자면 供給을 統制함으로써 보다 높은 價格을 받을려고 하였지만 거기에는 制約이 따르게 마련이었다. 모든 잠재적 生産者들이 充實하게 行動하지 않는다거나 販賣制限에 依해서 높은 價格을 받는 어느 構成員의 成功은 새로운 生産者를 市場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는 것 등이 主要한 制約要因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b 交易條件이 계속적인 惡化

지난 數十年동안 一次産品の 交易條件은 惡化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傾向은 계속될 것이라고 開途國들은 불평하는 것이 現實이다.

그러나 이 問題에 대하여 R. E. Caves는 歷史的인 事實에 비추어 보면 꼭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한다¹⁰⁾ 즉 1870年代에부터 1950年代 사이에 있어서 一次産品과 二次産品間의 交易條件은 一定한 傾向이 있는 것 같지 않으며 따라서 長期間의 傾向은 不確實 하다. 그러므로 農産物 價格이 長期間에 걸쳐 계속해서 惡化될 것인지의 與否는 確實치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事實들을 考慮한다면 開途國이 不利한 立場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一次産品과 二次産品の 世界의 産出高와 貿易量은 같은 比率로 成長해 오지 않았다. 즉 1900—1960년까지 一人當 製造業의 生産과 貿易은 四倍로 增加했는데 反하여 一次産品の 生産과 貿易은 50%의 增加에 그쳤다. 둘째는 所得彈性性이 一次産品에서 보다 二次産品에서 높다는 것이다. 셋째 先進國의 技術開發은 合成物質을 生産케 함으로써 開途國의 輸出品을 代替시켜 왔다.

以上과 같은 理由로 開途國이 一次産品 貿易에 依한 經濟成長에는 限界가 있게 마련이며 만약

10) R. E. Caves: World Trade and Payments, Little, Brown and Company, 1973, pp. 552-553.

開途國이 一次產品生産을 擴大함에 依하여 急速한 經濟成長을 이룩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交易條件은 더욱 惡化되게 될 것이다.

C. 輸出收入의 不安定

一次產品의 輸出收入은 二次產品의 輸出收入보다 不安定하다. 그 理由는 世界市場에서 一次產品에 대한 需要 供給의 價格彈力性이 낮기 때문이다. 이를 需要가 相對的으로 非彈力的인 「커피」를 例로 들어 說明해 보자. 가령 「커피」가 騰작이면 供給은 현저히 減少하게 되므로 價格은 폭등하게 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供給은 非彈力的이기 때문에 가격 폭등은 完化되지 않는다. 따라서 「커피」 價格이나 所得은 騰작인 때에는 상승하고 騰작인 때에는 하락하게 된다.

收入의 不安定을 크게 하는 또 다른 要因은 價格變化와 이에 對應하는 供給間에는 時差가 存在한다는 것이다. 가령 현재 「커피」 價格이 높다고 할 때 이에 對應하여 供給을 增加시키려면 「커피」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러나 「커피」나무가 자랐을 때에는 現在의 높은 價格이 低價格으로 變했을지도 모른다.

1946—1958년까지의 이들 不安定指數에 관한 몇개의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¹¹⁾

平均不安定指數(45開途國)	23.1
이란(가장높음)	73.8
알제친	41.3
인도	16.2
파나마(가장낮음)	9.9
平均不安定指數(18先進國)	17.6
일본(가장높음)	31.1
스위스(가장낮음)	6.2

以上の 數字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開途國의 輸出收入은 先進國의 그것에 比하여 不安定性이 더욱 높다. 뿐더러 이러한 不安定性의 內容을 살펴보면 開途國은 주로 價格變動에 依한 것이고 先進國의 그것은 數量變動에 起因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勞動이나 投資에 대한 所得의 不確實性을 싫어하기 때문에 可變的이며 위험이 수반하는 所得을 爲한 活動을 기피하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經濟理論에서도 위험이 따르지 않는 行爲에서 얻어지는 所得보다 위험이 수반하는 行爲에서 얻어지는 所得이 많아야 한다고 說明하고 있다. 이러한 理由 때문에 위험이 많으면서도 所得이 낮은 一次產品의 輸出擴大 活動이 기피되어질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輸出의 극심한 變動은 主要한 成

11) J.D.Coppock, International Economic Instability, the Experience after World War II, McGraw-Hill, 1962, chap. 4.

長戰略手段으로서 一次產品 輸出擴大를 거리는 또 다른 하나의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以上에서 우리는 開發國이 一次產品을 輸出함에 依하여 經濟成長을 達成한다는 것은 現實的 여건으로 보아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보아 왔다. 그렇다면 開發國이 經濟成長을 이룩하는데는 工業化하는 方法밖에 없는데 工業化하는데도 輸入代替産業을 重點적으로 發展시키느냐 아니면 國際分業의 原理에 依한 輸出産業을 重點적으로 育成하느냐하는 두 가지 方法이 있을 수 있는데 前者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輸出代替産業을 育成함에 依하여 經濟成長을 이룩하려면 貿易에 制限을 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主張하는 사람들의 理論의 虛實과 이들에 대한 問題點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a 貯蓄과 所得의 再分配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政策立案者들의 主要한 政策目標의 하나는 貯蓄率을 높임으로서 資本形成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런데 貿易의 制限은 所得을 再分配케 하므로써 貯蓄의 增加를 可能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輸入競爭産業 部門에 集約적으로 使用되는 生産要素의 所有者는 그들 所得의 10%를 貯蓄하고 輸出産業 部門에 集約적으로 使用되는 生産要素의 所有者는 그들 所得의 5%만을 貯蓄한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 貿易制限은 貯蓄을 많이 하는 쪽으로 所得이 再分配 되도록 할 것이며 따라서 平均貯蓄率은 增加하게 될 것이다. 많은 開發途上國들은 一次產品 輸出에서 얻어지는 地主의 所得은 投資되지 않거나 投資된다 하더라도 政府가 바라는 方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¹²⁾ 만약 이러한 가정이 事實이라면 가장 效率的인 政策은 地主所得에 直接的으로 課稅하는 것이며 輸出稅를 賦課하는 것은 次善策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b 貯蓄과 消費者의 支出

個人所得稅는 開發途上國에서 그리 發展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널리 施行되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累進所得稅 代身に 奢侈消費財의 輸入을 制限하는 貿易統制가 널리 行해지고 있다. 이것은 政策立案者들이 奢侈消費財에 對한 支出이 貯蓄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希望하는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만약 이 가정이 옳다고 하면 關稅는 奢侈品 消費에 대한 租稅보다 非效率의이며 만약 옳지 않다고 하면 이러한 政策은 奢侈消費財의 國內生産 增加라고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結果를 낳게 될 것이다. 生活必需品이 아닌 수입사치품의 消費를 制限하고자 할 때 關稅보다 消費稅가 全社會의 經濟厚生을 덜 희생시킬 것이다. 왜냐 하면 關稅를 賦課하는 경우 國內에서 의 사치품의 相對價格은 높게 되어 國內資源이 이 部門으로 쏠리게 된다. 따라서 消費者價格이나 生産者價格이 國際價格보다 높게 되어 國民의 희생은 커지게 된다. 그러나 消費稅를 부과하면 生産者價格은 國際價格으로 남아 있게 되어 國內資源이 이 部門으로 쏠리지 않으며 消費者價格만 上昇하여 消費를 減少시키게 된다.

c 實金水準과 二重經濟

12) R. E. Caves: World Trade and Payments, Little, Brown and Company, 1973, p. 553.

開途國에서 또 하나 問題가 되는 것은 一次産業과 二次産業에 있어서 限界生産物의 差異에서 오는 重要한 資源이 잘못된 配分인 것이다. 開途國에 있어서 勞動의 限界生産物은 農村經濟의 傳統的인 分配方式 때문에 勞動者가 받는 所得보다도 적다. 그러므로 勞動을 一次産業에서 二次産業으로 誘引하려면 勞動의 限界生産物 以上の 賃金を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二次産業의 賃金は 勞動의 限界生産物과 같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經濟의 諸部門들 間에 不均等이 存在하게 마련이다. 이를 解決하는 手段은 關稅가 아니라 二次産業 部門에 補助金を 내 주는 것이다. 왜냐 하면 二次産業 生産에 대한 補助금이 勞動보다도 다른 生産要素를 많이 使用하게 한다하더라도 二次産品의 輸入을 制限하는 것보다는 좋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二次産品 輸入에 對한 關稅는 二次産品의 國內消費를 減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開途國들은 그들의 稅源의 不足 때문에 補助金과 租稅를 同一하게 賦課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輸入關稅를 選好하는 傾向이 있다.¹³⁾

d 유치산업 보호

幼稚産業保護論은 國際經濟學만큼이나 오래된 것인데 이것이 妥當性을 갖기 爲해서는 그 産業이 自由貿易 價格으로 充分히 競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産業을 保護하기 爲하여 치른 費用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開途國에서의 基礎的인 産業技術은 대단히 빈약할 뿐 아니라 이들의 大部分은 經驗에 依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처음 始作하는 産業은 過重한 訓練費用을 負擔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個別企業들은 熟練勞動에 대하여 보다 높은 賃金を 支拂해야 하며 따라서 熟練勞動의 利益을 充分히 享有할 수 없다. 왜냐하면 높은 賃金を 내주지 않으면 熟練勞動者들은 다른 企業으로 가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幼稚産業을 保護하기 爲하여 關稅를 賦課하는 것은 이러한 現象이 없어질 때까지의 一時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는 關稅를 使用하는 것보다는 補助金에 依存하는 것이 보다 效率的인 것이다. 왜냐하면 訓練費用補助金은 生産과 消費「패턴」의 부수적인 왜곡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 資本流入의 促進

資本에 對한 報酬는 資本이 輸入競爭部門에서 가장 集約的으로 使用될 때에만 上昇하는 것이 一般的이므로 保護關稅가 輸入競爭部門에서의 資本에 대한 報酬率을 반드시 올린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諸産業이 순수한 競爭狀態에 있지 않고 通關장벽과 生産物에 대한 差別化의 要因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면 關稅는 輸入競爭産業에서의 利潤을 자극하는 傾向이 있는 것 같으며 이러한 자극은 外國의 直接投資라는 형태로 資本의 流入을 誘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多國籍企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13) E. E. HIGSON, "An Economic Justification of Protectio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2 (November 1958), pp. 496-514.

f 複數換率制

f, 와 다음에 말하는 g, 는 關稅와 같은 效果를 나타내는 것이나 先進國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開發途上國에서 종종使用되는 制度이다.

開發途上國은 一般的으로 外貨가 不足하기 때문에 이 不足한 外貨를 가장 效率的으로 使用하기 爲하여 外貨集中制를 채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더하여 複數換率制를 實施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收入源이나 使用되어지는 곳에 따라서 다른 換時勢를 適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關稅와 같은 效果를 나타내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가령 自由外換市場에서 우리 나라의 換時勢가 1「달러」當 500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어느 輸入商이 그가 輸入하고자 하는 商品을 輸入하는데 1「달러」當 550원을 支拂해야 한다면 이것은 10%의 從價關稅를 支拂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마찬가지로 輸出商이 그가 輸出한 商品에 대하여 1「달러」當 450원 밖에 받지 못한다면 10%의 稅金을 支拂한 것이나 같은 것이다. 開途國들은 이와 같은 方法에 依하여 産業을 保護함과 同時に 對外支拂의 不足을 어느程度 解決해 나갈 수 있다.

g 國產原料를 使用케 하는 制度

製造業의 設立 特히 外國의 子會社가 國內에 設立되는 경우 이들 會社로 하여금 最少限度의 國內原料를 使用하도록 하는 制度이다. 이런 경우 이들 會社들은 값이 헐한 輸入品 代身에 비싼 國內原料를 使用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것은 關稅를 부과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效果를 가타내게 된다.

지금까지 開途國의 輸入代替産業을 育成 發展시키기 爲하여 採擇하고 있는 몇개의 貿易制限手段과 이들의 內容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開途國들의 現實的인 貿易制限은 어느 정도일까? 開途國들은 製造産業 特히 消費財産에 대하여는 지나친 保護를 하고 있으며 그들의 一次産業 部門에 대해서는 負의 保護(예를들면 產出物은 國際價格으로 販賣하는데 反하여 投入物中の 어떤것의 價格은 關稅에 依하여 國際價格 以上인 경우에 發生할 수 있다)를 하고 있다고 Caves 는 말하고 있다¹⁴⁾ 많은 開途國들은 2次大戰 以後 輸入代替産業을 發展시켜 왔으며 그러기 위하여 그들은 非熟練 혹은 準熟練勞動을 要하는 非耐久消費財의 輸入을 全面 禁止시키거나 極端的으로 制限하였다. 輸入代替産業은 非耐久財에 局限되지 않고 耐久消費財, 基礎産業의 原資材, 機械産業 등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이 極端的인 保護는 經濟的인 厚生을 희생시켰음에 틀림없는데 이와 같은 희생은 치를 만한 價値가 있느냐 하는 것이 重要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이 問題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輸入代替産業을 育成하기 위하여서는 保護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사람들은 一時的인 保護로부터 發生하는 幼稚産業의 動的利益을 特히 強調한다. 이러한 利益은 그러한 産業의 初期發展段階에서 發生하는 것이기 때문에 保護되는 産業이 後에 保護없어도 充分히 경쟁할 수 있을 만큼 効

14) R. E. Caves: World Trade and Payments, Little, Brown and Company, 1973, pp. 559-560.

率的이 되지 못하면 이를 保護할 價値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幼稚産業 保護論은 경우에 따라서만 그 正當性이 認定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나친 保護를 받고 있는 産業部門은 지나친 保護와 이와 競爭關係에 있는 産業이 國內에 거의 없기 때문에 効率化를 爲한 努力을 게을리하게 된다. 말하자면 이들은 生産을 적게하고 利潤率을 높이는 政策을 追求하는 傾向이 있으며 生産의 改善이나 技術開發을 등한히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生産品의 質은 나빠지는 경우가 많으며 위험부담을 수반하게 되는 새로운 生産品이나 生産方式, 技術革新 等を 導入하려고 하지 않는다¹⁵⁾

開途國은 그 市場이 적다는 것이 또 하나의 問題가 된다. 많은 製造業部門을 保護育成하려면 市場이 적기 때문 非効率的일 수밖에 없다. 이 問題는 保護되는 輸入代替産業이 輕工業에서 重化學工業으로 移行될수록 더욱 심각하게 마면이다.

그러나 代替産業保護를 主張하는 사람들은 産業化가 非効率的인 産業으로 代替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卽 保護를 하지 않았다면 生産要素의 雇傭水準이나 貯蓄水準이 낮았을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지나친 關稅保護는 輸出産業 部門에서 資源을 빼내지 않을 뿐 아니라 經濟規模를 擴大시킨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過去の 資料는 이것을 立證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反對이다. 말하자면 지나치게 輸入代替를 促進시켜왔던 國家에서는 資源이 一次產品 輸出部門에서 만 데로 돌려졌으며 從來의 輸出市場에서 그들의 몫은 감소되어 졌다. 더우기 輸入代替産業 部門의 成長에 對應해서 工產品 輸出이 擴大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經驗으로 보면 保護를 지나치게 하지 않은 國家의 工產品 輸出이 훨씬 伸張되어져 왔다.

그러기 때문에 輸入代替産業을 保護하는데 있어서 問題가 되는 것은 어느 程度 保護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問題에 대해서는 아직도 一致된 理論이 없다. 그러나 開途國의 最近의 傾向은 輸出市場을 相對로해서 보다 効率的인 産業發展으로 移行되고 있음은 注目할 만한 일일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輸入代替産業을 育成함에 依하여 經濟成長을 도모하는 경우의 問題點들을 살펴 보았는데 이러한 方式을 追求할 때 貿易量의 減少, 實質所得의 減少, 非効率性 等を 招來할 可能性이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經濟成長에 대한 貿易의 기여도는 크지 못함을 알 수 있다. 勿論 Nurkse 같은 사람은 開途國이 初期段階에서는 國內市場을 相對한 經濟成長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가 設定한 가정 위에서 主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正當性이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設定한 가정에 대해서는 다음 項에서 檢討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다만 開途國이 經濟成長을 達成하는 데 貿易에 依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

15) Bela Balassa et al: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Johns Hopkins, 1971, p. 79

한다는 것을 미리 말하여 두는데 그치기로 한다.

3. 開途國이 一次產品 輸出에 依하여 經濟成長을 이룩한 다는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工業化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데 工業化에 依存하는 경우에도 國內市場 指向的인 方法과 國際市場 指向的인 方法이 있는데 앞에서 우리는 國內市場 指向的인 方法에 關하여 살펴보았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問題點이 있지만 生産의 非効率性, 國內市場의 협소 등이 가장 큰 問題로 등장하고 있으며 때문에 最近 開途國의 經濟成長政策은 國際市場 指向的인 方法으로 移行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輸出指向的인 經濟成長政策은 어떠한 長短點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의 現實性은 어떠한가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D. B. Keesing은 輸入代替化 政策에서 問題가 되고 있는 非効率性 및 협소한 市場問題는 輸出指向的인 政策에 依하여 解決할 수 있으며 이러한 政策을 推進할 때는 比較生産費의 原理에 따라 將來에 國際競爭을 할 수 있는 産業을 育成해야 할 것이라는 主張을 하고 있다.¹⁶⁾ 말하자면 世界市場에서의 價格競爭은 會社들로 하여금 非効率性의 排除, 技術革新, 品質管理 등을 爲한 努力을 傾注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世界市場의 信號에 민감하게 行動하지 않을 수 없다. 通信 (Communication)과 競爭은 밀접한 연계 關係가 있기 때문에 會社가 生存하기 爲하여서는 外部에서 보내지는 信號에 민감하게 對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反面 지나친 保護를 받는 部門에서는 外部로부터 오는 信號가 補助金이나 統制와 같은 政治的인 것들이며 이럴 경우 企業家들은 企業家精神보다는 政治的인 술책에 더욱 關心을 가지게 된다.

輸出指向的인 成長政策을 追求하면 生産의 非効率性 및 市場問題를 解決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問題는 開途國에 比較우위를 享有할 수 있는 産業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對하여 Hal B. Lary는 可能하다고 主張하고 있다.¹⁷⁾ 그는 다음과 같은 가정 위에서 이의 可能性을 主張하고 있다. 첫째 現實的인 生産要素는 資本(物的資本 및 人間의 技術)과 非熟練勞動이 있다는 것, 둘째 必要로 하는 勞動에 對한 總資本의 比率에 따라 모든 生産過程의 順序를 定할 수 있다는 것, 셋째 모든 製造業은 要素集約的인 反轉이 없다는 것. 이러한 가정이 成立할 때 만약 X産業이 美國의 要素價格으로 Y産業보다 資本集約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印度의 要素價格으로서도 資本集約的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開途國은 勞動集約的인 産業일수록 比較우위가 클 것이고 先進國은 그 反對가 될 것이다.

그러면 以上과 같은 國際分業은 順調롭게 發展되어져 왔는가? 이에 對한 對答은 그리 긍정적 인 것이 못 되는것 같다. 1953~1965년까지의 開途國의 勞動集約的인 商品輸出은 每年 13%程度 增加 하였지만 總量面에서는 아직도 보잘 것 없는 상태다. 1965년에 美國은 그들이 消費한 勞動

16) D. B. Keesing, "Outward-Looking Policies and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Journal* 77 (June 1967), pp. 303-320.

17) Hal B. Lary: Imports of Manufactures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68.

集約의 商品의 4%만을 外國으로부터 輸入하였으며 開途國으로부터의 輸入은 겨우 0.7%에 不過하였다. 따라서 開途國과 先進國間에 國際分業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以上은 Lary의 이야기다.

國際分業이 順調롭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가장 重要한 理由는 先進國이 勞動集約的인 輸入商品에 대한 高率의 關稅 및 여러 가지 무역통제를 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貿易制限은 先進國이 그들의 經濟的 厚生을 增進시킬 수 있다고 믿는데서 오는 것은 勿論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産業再調整이 順調롭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서 오는 政治的 社會的인 諸問題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開途國이 貿易에 依하여 經濟成長을 達成하려는 경우 先進國의 貿易自由化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을 期待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次善策을 擇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한 次善策으로는 開途國間의 關稅同盟과 先進國의 關稅特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¹⁸⁾

關稅同盟은 開途國의 市場이 小規模에서 오는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A國은 X 産業, B國은 Y 産業, C國은 Z 産業에 特化하여 貿易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市場規模를 擴大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政治的인 어려운 問題들이 있어 이를 實現하기도 그리 容易하지 않다.

先進國의 關稅特惠는 開途國으로부터 輸入하는 製造品에 대하여는 낮은 關稅率을 賦課하거나 혹은 면제하고 同一品目에 대한 다른 先進國으로부터의 輸入은 現在의 關稅率을 그냥 維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開途國의 輸出商品價格이 先進國 市場의 國內商品價格보다 낮은 限 輸出은 增加할 것이다. 그러나 先進國은 여러 가지 不利益을 참지 않으면 안 된다. 失業問題, 關稅收入減少 등이 그러한 것이다. 때문에 先進國이 이 問題에 대하여 好意的이라고 期待하기는 困難하다. 따라서 開途國이 次善策에 依하여 經濟成長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學者들 間에 意見이 統一되어 있지 않다. Nurkse는 開途國이 貿易에 依한 經濟成長政策은 勞動의質, 供給面에서의 隘路, 需要面에서의 隘路, 即 先進國의 貿易制限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 하고 있다.

4. 지금까지 開途國의 經濟成長政策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一次產品의 輸出에 依한 成長政策은 所望스러운 것이 못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學者들 間에 意見이 一致되고 있는데 反하여 國內市場 指向的인 工業化에 依存할 것인가 아니면 國際市場 指向的인 工業化에 依存할 것인가 하는 데는 아직도 決定的인 結論이 나 있지 않다.

本論文에서 筆者의 關心事는 國內市場指向的이나 國際市場 指向的이나 하는 問題를 判가름해 보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現在까지 있어왔던 것과 같은 先進國의 貿易制限이 果然 開途國으로서의 解決할 수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開途國이

18) R. E. Caves: World Trade and Payments, Little, Brown and Company, 1973, pp. 563-564.

輸出指向의인 成長政策을 追求할 때 問題가 되는 것은 先進國의 貿易制限 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重要하고도 決定的인 要因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은 거의 確實하다. 이것을 解決하기 위한 手段으로 開途國 間의 關稅同盟이라든가 先進國의 關稅特惠 등이 提示되고 있다. 그러나 筆者는 勞動의 質과 관련되는 教育問題가 輸出指向의인 成長政策을 追求할 경우 가장 重要的 要因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이 解決되면 輸出指向의인 成長政策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는 77년에 輸出百億弗을 突破했다. 그런데 輸出「드라이브」政策을 始作한 '62年度の 우리 나라 經濟狀態는 어떠했던가 하면 二次產品은 말할 것도 없고 一次產品마저도 輸出할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國際經濟環境 역시 우리에게 不別한 方向으로 움직이던 時期였다. 말하자면 先進國이 保護貿易을 強化하기 始作하던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主로 先進國 市場을 通하여 놀랄 만한 經濟成長을 達成하였다. 앞에서 先進國 市場에 依存하여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困難한 理由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理由中에서도 先進國의 貿易政策 즉 貿易制限에 가장 큰 比重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경우에 이를 어떻게 解析해야 할 것인가? 筆者는 教育水準이 높은 勞動力이야말로 輸出指向의인 經濟成長政策을 追求하는데 가장 重要的 要因이라는 가설을 提示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가 가졌던 經濟成長要因이라고는 이것 밖에 별다른 것이 없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從來의 理論을 가지고서는 開途國의 經濟成長은 現實의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다 바람직한 開發模型을 만들어내는 作業의 일환으로 前記한 가설을 검증해 보는 것도 充分히 價値있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의 검증은 다음 機會에 미루기로 한다.

IV

以上에서 考察해온 바와 같이 貿易은 一國의 經濟成長을 促進시킬 수 있다. 말하자면 賦存生産要素, 蓄積된 生産要素의 利用 및 技術水準의 成長을 促進하므로써 生産可能曲線을 擴大시킨다. 貿易의 擴大는 遊休資源의 發見이나 開發을 誘引하므로써 生産可能曲線을 擴大시키며 따라서 開途國의 總勞動投入量의 擴大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國內貯蓄을 增加시키고 外國資本을 流入케 하므로써 資本蓄積을 增大시키며 또한 技術을 改善시킨다.

그런데 開途國들은 여러 가지 理由를 내세워 國際貿易에서 그들의 役割에 대한 불만을 表示하고 있다. 즉 先進國의 産業獨點은 開途國으로 하여금 製造品에 대하여 지나친 價格을 支拂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長期的인 面에서 보더라도 開途國의 交易條件은 不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後者の 것은 과거의 經驗으로 볼 때 不確實하다. 그렇지만 一次產品 輸出需要의 增加는 二次產品의 그것에 比하여 느리다는 것만은 確實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만은 開途國의 輸出收入이 不安定하다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開途國은 工業化를 爲하여 여러 가지 貿易制限政策을 使用하고 있는데 그중

에서도 가장 널리 行해지고 있는 關稅政策은 次善策이라는 것이다. 所得再分配는 關稅보다는 直接稅가 더 좋으며, 關稅는 奢侈品수입을 억제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國內의 奢侈品 생산을 助長할 수도 있으며 關稅는 傳統的인 農業部門의 勞動力을 二次産業으로 流入되도록 할 수 있지만 二次産業에 補助金을 내주는 것이 보다 效率的이다. 幼稚産業保護論은 一時的으로만 그 正當性을 인정받을 수 있다. 貿易制限政策은 여러 가지 非效率化를 낳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貿易에 依한 成長政策을 追求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問題가 되는 것은 先進國의 貿易制限 問題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 開途國間의 關稅同盟이나 先進國의 關稅特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現實的으로 어렵기 때문에 勞動의 質과 관련되는 敎育이라는 要素가 先進國의 貿易制限 問題를 打開하는데 가장 重要한 要因이라는 가설을 筆者는 提示하고자 한다.

本論文에 살펴보아서 알 수 있는 것처럼 過去와 같이 貿易을 통한 經濟成長은 現實的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開發模型의 必要性和 開途國이 當面하고 있는 많은 새로운 問題들을 理解하기 爲해서 努力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Summary—

The Role of Trade and its Influences upon Economic
Growth in Less-developed Countries*Kim Moon-kwan*

A country's growth may be stimulated by foreign trade when the offer curve it faces shifts outward. Such a shift improves the country's terms of trade. It may also encourage the growth of its factor endowment, rate of utilization of that factor stock, or level of technology, and thus shift its production possibilities outward. The expansion of trade has often induced the discovery or development of previously idle natural resources, and thus expanded production possibilities. It has caused expansion of total labor input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capital stock may increase because domestic saving rises, or capital is imported from abroad. Expanding export industries in some cases improve skills and technology for the country as a whole, but that improvement depends on the traits of its export sectors.

The less-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discontented with their role in international trade, for several reasons. They argue that industrial monopolies in the mature countries charge them high prices for manufactures. They claim that the terms of trade tend in the long run to turn against their exports; this is in fact unclear, but world demand for their primary-product exports certainly grows less rapidly than it does for industrial products. They complain that their export earnings are relatively unstable, and this is clearly the case.

Careful analysis is required, however,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 less-developed countries can improve their lot by restricting trade, as they have extensively done. Several of the arguments for tariffs can change the income distribution (but direct taxation would be better); tariffs can curb luxury imports (but may simply stimulate luxury-goods production at home); tariffs can lure labor from the traditional agricultural sector (but a subsidy to industrial employment would be more efficient).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is valid but justifies only temporary protection. Actual trade restrictions in the less-developed countries are quite heavy, taking such forms as multiple

exchange rates and domestic content requirements as well as tariffs and quotas. Studies of protected industrialization find heavy costs of inefficiency, excessive capital-intensity, and the like.

Concentration on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may cause countries to overlook the potential gains from expanding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the export of manufactured goods. The evidence suggests that it would be efficient for the less-developed countries to expand their exports of simple manufactures requiring labor-intensive fabrication.

But heavy tariff protection on such items by the industrial countries has minimized this mutually beneficial division of labor. Proposals to circumvent this drawback include customs unions among the less-developed countries themselves and the granting of tariff preferences by the industrial countries. But it is actually difficult to expect the realization of such proposals. So I propose the hypothesis that the level of educ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order to overcome the heavy tariff protection of industrial countries.